



스위스 탐구 생활: 파노라마 기차 꼼꼼히 활용하기.

관광열차도 로컬처럼

누구나 여행하는 방식 말고

좀 더 특별한 파노라마 기차 활용법

샴페인 잔 부딪히는 우아한 노부부처럼

알프스 한복판 메밀 파스타의 맛

파노라마 기차로 사랑의 불시착

알프스 작은 마을 여행

파노라마 기차 타고 색다른 알프스 등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 곧 떠날 날을 준비하는 의미로 스위스정부관광청은 한국 여행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위스 여행지의 숨은 묘미를 하나씩 공개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더 다채롭고 깊이 있게 곧 다시 스위스를 여행하기를 기대하며, 그 다섯 번째로 스위스 전역을 이어주는 파노라마 기차를 소개한다. 특히 로컬들이 관광열차를 이용하는 방법과 팁을 소개한다.

1. 빙하특급(Glacier Express)에서는 로컬 노부부처럼 우아하게 엑셀런스 클래스 체르마트(Zermatt) – 생모리츠(St. Moritz)

마터호른(Matterhorn)이 우뚝 솟아 있는 알프스 산골 마을 체르마트부터 패셔너블한 리조트 생모리츠까지 이어준다. 튀지스(Thusis)부터 이어지는 알불라(Albula)와 베르니나(Bernina) 철도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만큼 감동적인 알프스 깊숙한 파노라마를 선사한다. 베르니나 고개(Bernina Pass)의 가장 높은 지점을 통과하며 짜릿한 풍경을 안겨 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렇게 7 개의 계곡과 291 개의 다리, 91 개의 터널을 지나며 약 7 시간 30 분에 걸쳐 달리는데, 구름 속을 뚫고 올라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알프스의 비밀스런 풍경과 위엄한 알프스 절벽을 지나는 광경도 보여준다. 특히 아찔한 돌다리, 란트바쎄 비아дук트(Landwasser Viaduct)가 여정 중 하이라이트로 꼽히며, 해발고도 2,000m 이상인 오버알프 고개(Operalp Pass), 라인슐루흐트 계곡(Rheinschlucht Gorge), 푸르카 터널(Furka Tunnel)을 지나며 기막힌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여정 중 가장 높은 지점은 오버발트 고개(Operalp Pass)로, 2,033m 에 달한다.

로컬들이나 유럽 여행자들은 체르마트에서 생모리츠 전 구간을 탑승해 특별한 하루를 보내기 즐긴다. 특히, 일등석보다 우위에 있는 엑셀런스 클래스(Excellence Class) 탑승 자체를 데이트 코스로 생각하는 노부부도 볼 수 있다. 더욱 안락한 좌석에 앉아 최고의 뷰를 즐기며 미식 체험을 할 수 있다. 엑셀런스 클래스의 특별한 점은 기차에 오르자마자 느낄 수 있다. 컨시에지 코너가 마련된 데스크에서 환영 인사를 받으며, 체크인과 수하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샴페인을 곁들인 연어 수플레를 맛보며 파노라마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기막힌 풍경들에 대한 흥미진진한 에피소드와 정보를 들을 수 있다. 노련한 승무원들이 여정 내내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부단히 애쓴다.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타블렛으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즐길 수도 있고, 여정이 지나는 루트와 지방, 그곳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여정 중, 승무원들은 와인을 곁들인 향토식 5 코스 런치를 서빙한다. 피츠 베르니나(Piz Bernina)나 마터호른(Matterhorn)을 바라보며 맛보는 아뮤즈 부쉬와 샴페인은 그 맛이 배가 된다. 환영주나 식전주로, 글래시어 바(Glacier Bar)를 이용해볼 것을 권한다. 최고의 뷰를 조망할 수 있다. 여정



후반에는 디저트를 곁들인 애프터눈 티가 서빙된다. 엑셀런스 클래스에서 즐기는 여정은 단순히 감각적인 만찬일 뿐만 아니라, 스위스 최고의 특별한 체험이 되어줄 것이다.

2. 베르니나 특급(Bernina Express) 타고 메밀 파스타 먹으러

쿠어(Chur) – 티라노(Tirano)

래티슈 철도(Rhätische Bahn: RhB)가 운영하는 알볼라(Albula)와 베르니나(Bernina) 라인은 알프스를 통과하며 가장 스펙타클한 절경을 보여 주는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철도 구간이기도 하다. 이 구간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베르니나 특급(Bernina Express)에 오르는 것이다. 래티슈 철도가 운영하는 전통적인 고품격 관광 열차 중 하나로, 알프스의 가장 높은 지점들을 통과하며 알프스의 심연한 풍경을 보여준다. 쿠어(Chur)를 출발해 웅장한 빙하지대를 지나며 야자수를 볼 수 있는 티라노(Tirano)까지 하강 여정을 계속한다. 55 개의 터널과 196 개의 다리, 1 미터당 70mm의 하강 곡선을 그리는 여정이 이어진다. 베르니나 특급 구간의 여정 중 가장 높은 지점은 2,253m로, 오스피치오 베르니나(Ospizio Bernina)다. 베르니나 특급의 하이라이트는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구간, 즉 란트바쎄 비아дук트(Landwasser Viaduct) 다리와 나선형으로 굽이치며 하강 곡선을 그리는 구간인 베르귄(Bergün)과 프레다(Preda) 구간을 꼽을 수 있겠다. 이 밖에도 가장 높은 지점인 오스피치오 베르니나(Ospizio Bernina)와 알프 그림(Alp Grüm), 팔뤼(Palü) 모르테라취 빙하(Morteratsch Glacier), 국경 도시인 포스키아보(Poschiavo) 구시가 등이 있다.

아침에 베르니나 특급에 올라 근사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라우뷘덴 로컬들이 하루 맛집 여행을 할 때나 손님을 안내할 때 이용하는 방식이다. 바로, 중간역인 알프 그림(Alp Grüm)에서 정차하여 역사에 있는 식당, 알베르고(Albergo Ristorante Alp Grüm)에서 풍류나, 메밀로 만든 전통 파스타인 피초케리(Pizzoccheri), 그라우뷘덴에서 말린 건조육을 풍성하게 맛보는 것이다.

3. 루체른-인터라켄 익스프레스(Luzern - Interlaken Express) 타고 사랑의 불시착

루체른(Luzern) – 인터라켄(Interlaken)

스위스에서 가장 인기 높은 두 목적지, 루체른과 인터라켄을 잇는 파노라마 기차로, 낭만이 내려앉은 호수와 초원, 호반 마을들의 정겨운 풍경을 보여준다. 단 두 시간 만에 두 목적지를 편리하게 이어주는데, 여정 중에는 수많은 강과 폭포에서 흘러내려 형성된 다섯 개의 산상 호수를 지난다. 호반을 따라가며 병풍처럼 둘러싼 산 절벽들에는 새하얀 눈꽃이 내려앉아 그림 같은 사진을 만들어 낸다. 가파르고 구불대는 브뤼니크 고개(Brünic Pass)를 지나고 기차는 톱니바퀴 운행으로 변경해 운행한다. 사실, 이 구간은 인터라켄에서 몽트뢰(Montreux)로 이어지는 골든패스 라인(GoldenPass Line)의 일부 구간이기도 하다. 쉐트랄반(Zentralbahn)이라고도 불리는 이 구간에서는 무료 '라이브가이드(LiveGuide)' 앱을 다운 받을 수 있는데, 지도를 보며 기차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실시간으로 루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시간에 다음에 나오는 하이라이트와 중요한 정보가 제공된다. 기차 내에는 식당칸이 마련되어 있어 맛깔난 치즈에 와인을 곁들여 여정을 즐길 수 있다.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에필로그에서 윤세리와 이정혁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품을 내어준 풍경을 루체른-인터라켄 익스프레스로 찾아볼 수 있다. 중간 정차역인 룽게른(Lungern)에서 하차하면 된다. 룽게른 마을에 있는 호수로, 마셔도 되는 수질에 23 도까지 수온이 올라가서, 여름에는 수영하기에 최고의 스포츠이다. 고운 모래가 있는 자그마한 수영장도 마련되어 있고, 워터 슬라이드도 설치되어 있어 로컬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다. 루체른에서는 44 분이, 인터라켄 오스트에서는 59 분이 소요된다.



4. 골든패스 라인(GoldenPass Line) 타고 양증맞은 작은 마을 여행

몽트뢰(Montreux) – 츠바이짐멘(Zweisimmen) – 인터라켄(Interlaken) – 루체른(Luzern)

여섯 개의 호수와 여섯 개의 칸톤, 세 개의 고개를 넘나드는 골든패스 라인(GoldenPass Line)은 스위스의 불어권인 레만(Léman) 호의 몽트뢰(Montreux)를 출발해 츠바이짐멘(Zweisimmen)과 인터라켄(Interlaken)을 지나 독어권의 호수 지대 및 루체른(Luzern)을 이어주며 로맨틱한 풍경을 보여준다. 제일 앞칸을 파노라마형으로 개조한 VIP 석을 이용해 보거나, 벨에포크 양식으로 단장한 골든패스 클래식 차량을 이용하면 더 특별한 파노라마 여행을 체험할 수 있다.

로컬들이 골든패스 라인을 이용하는 것은 스키나 하이킹을 위해 주변 마을을 찾기 위해서다. 몽트뢰와 츠바이짐멘 사이에는 작은 알프스 마을이 이어져 있다. 5월의 나르시스로 유명한 레자방(Le Avants), 화가 발투스(Balthus)가 살았던 그랑 샬레(Grand Chalet)가 있는 로시니에르(Rossinière), 열기구 축제가 열리는 샤토데(Château-d'Oex), 봄이면 민들레밭이 셋노랄게 물드는 루쥬몽(Rougemont), 럭셔리 부티크 마을이자 글래시어(Glacier) 3000 으로 향할 수 있는 그슈타드(Gstaad)로 당일 여행을 떠나기 좋다. 브록(Broc)에는 라 메종 까이에(La Maison Cailler) 초콜릿 공장이 있다.

5. 보랄펜 익스프레스(Voralpen-Express) 타고 색다르게 리기 등반

생 갈렌(St. Gallen) – 루체른(Luzern)

프리 알파인(Pre-alpine) 익스프레스라도고 불리는 코스로, 스위스의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는 마을, 토겐부르크(Toggenburg) 지역부터 라퍼스빌(Rapperswil)을 지나 로텐투름(Rothenthurm)을 통과하며 고지대 습지를 지나 루체른 호숫가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선사하며 스위스 북부 완만한 지대의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선사한다. 언덕과 아기자기한 마을, 정겨운 과수원 풍경을 만나볼 수 있다. 생갈렌 근교의 99m 높이 고가, 지터비아дук트(Sitterviadukt)가 여정 중 하이라이트다.

보랄펜 익스프레스는 생갈렌에서 루체른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리기(Rigi) 산을 찾아보기 좋다. 보통 루체른에서 유람선을 이용해 비츠나우(Vitznau)에서 출발하는 빨간색 리기 기차를 이용하지만, 보랄펜 익스프레스를 타고 아르트 골다우(Arth-Goldau)에서 하차해, 아르트 골다우에서 출발하는 파란색 리기 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아르트 골다우에서 기차를 타고 리기 정상까지 가도 좋지만, 다른 방면에서 리기 정상에 접근할 수도 있다. 크래벨(Kräbel)에서 하차하 케이블카를 타고 리기 샤이덱(Rigi Scheidegg)으로 오를 수 있는데, 아름다운 파노라마를 감상하며 리기 쿨름(Rigi Kulm)까지 하이킹을 할 수도 있다.

*** 꿀팁

스위스 그랜드 트레인 투어(Grand Train Tour of Switzerland) 앱

스위스에서 제일 아름다운 기차 여행 가이드

스위스 그랜드 투어의 파노라마 기차는 매력적인 스위스 도시에서 알프스 핫스팟까지 달리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통과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와 풍경을 지난다. 정해진 방향이나 기간은 없다. 여행자들은 자유롭게 기차에 오르내리면 된다. 스위스 그랜드 트레인 투어는 수많은 산악 여정의 완벽한 동행자다.



스위스 전역을 달리는 환상적인 기차 여행을 따라 꼭 한 번 찾아보아야 할 명소 전체와 여정을 위한 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스위스 그랜드 트레인 투어 앱은 이런 정보와 함께 그 이상의 혜택을 선사한다.

- 곧 나타날 명소 및 풍경에 대한 푸쉬 알림
- 게임 같은 방식의 스탬프 수집과 상 수여
- "그랜드 트레인 투어 마스터"가 되는 특별한 성취
- 앱 내에 수록된 디지털 쿠폰 통해 매력적인 상품 및 할인 혜택
- "미션 완수" 버튼을 통해 개인 고유의 방문지 기록
- 루트 상의 흥미롭고 재미난 팩트 안내

휴대폰에 설정된 언어에 따라 자동으로 언어를 반영한다. 한글로도 운영된다.

다운로드

<https://www.myswitzerland.com/en/experiences/experience-tour/highlights-by-train-bus-and-boat/grand-train-tour-of-switzerland/grand-train-tour-of-switzerland-discover-the-new-app/>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